

전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펼친다

외근인근로자도 포함 99억원 들여 23개 사업 추진
올해부터 익산시 등 11개시·군에 가족센터 운영도

전북도가 올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99억여원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담당공무원과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 마련과 센터 간 정보교류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관련 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한 99억 4300만원으로 2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익산시 등 11개 시군에서 다양

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한다.

전주시와 익산시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등 관련 민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3월부터 운영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에는 32개 과정의 결혼이민자 261명에게 이증언어강사 양성, 다문화이행강사 등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190명에게 초·중·고등학교 학력취득 및 대학 학력지원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기업후원을 유치해 추진한 글로벌진전캠프의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에서 지



지난 21일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담당공무원과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속적인 추진 요청과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는 다문화청소년 글로벌 연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호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올 한해

도 ‘절차탁바(切腹塚)’의 자세로 끊임없이 갈고 닦는 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 제공〉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연 모습.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 예술성·우수성 입증 ‘제1회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 소리축제서 1위 차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 세계 1위 축제로 발돋움해 판소리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22일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제1회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소리축제가 호주 ‘워매들레이드(WOMADelaide)’와 함께 1위를 차지했다.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는 전 세계 월드뮤직 평론가와 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트랜스글로벌월드뮤직차트(TWMC)’가 각국의 민속 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기획했다.

TWMC는 이번 어워드에서 세계 20개 축제를 심사했고, 소리축제는 베스트 축제

분야와 베스트 대형축제 분야, 글로벌 톱 10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음악적 다양성, 신진예술가 육성, 행사장 배치 및 관객 동선 등에서 다른 축제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리축제조직위는 설명했다.

소리축제조직위 관계자는 “TWMC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이 탁월하고, 전반적인 축제 분위기도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했다”며 “다양한 판소리 기획 공연은 한국 소리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전통의 본질에 다가서는 훌륭한 시도였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새만금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도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새만금 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오·폐수 불법배출에 대비해 산단 주변 하천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 신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새만금 환경청 관계자는 “연휴 동안 환경감시 공백을 최소화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폐수 무단방류와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올 324억 투입 침수예방사업 추진

군산시가 올해 총 324억원을 들여 단·중기 침수예방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열린 수도사업소(소장 동태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동 소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심지 침수 발생에 대비해 변영로 일원 차집관로 준설 등 침수 예방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변영로 일원(월명경기장~경장사거리)에 재단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해 차집관로 3.7km, 준설량 2700㎥를 정비하는 사업을 오는 3월 착공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또 10억원을 투입해 시청에서 롯데몰 일

원까지 하수박스 1.8km, 준설량 4526㎥를 정비할 계획이며, 작업 완료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3억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관거사업으로는 구암동 현대APT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중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294억원이 투입되는 산복동 일원 침수예방중점관리사업을 오는 2020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군산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바이 패스(by pass) 시설 확충 등으로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6월 28일까지 676ha 총 22억9800만원 규모

남원시가 오는 6월28일까지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일정 금액을 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규모는 676ha에 총 22억98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 사업 참여 농지와 쌀변동작물금 지급 농지, 벼 재배시설이 확인된 농지 등이다.

지원 품목으로는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다. ha당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원, 두류 325만원, 풋거름 등 일반작물 340원 등이다. 지난해 보다 올랐다.

시는 쌀 증산에 초점을 맞춘 농업정책

을 과감히 접고 적정 수준의 고품질쌀을 생산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 규모는 조사료 91ha, 두류 16ha, 풋거름 등 일반작물 135ha 등 총 242ha였다. 523농가가 7억6500만원을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해 고품질쌀 적정 생산과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면서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지난 19일 국내 브랜딩 전문가와 고창의 농식품 기업 등 관련 종사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주력

고창군이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에 적용할 통합브랜드 개발에 주력한다.

고창군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 국내 브랜딩 전문가와 고창의 농식품 기업 등 관련 종사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은 기존 황토매기, 선연 등의 브랜드와 지역을 상징하는 모로모로를 제작·활용해 왔으나 차별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요소와 농특산물, 문화관광에도 적용되는 공동브랜드를 융합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군은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의 천혜의 생태자원과 미래 지향적인 지역의 이미지를 결합하고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통합브랜드를 만들 계획이다.

군은 또 통합브랜드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고창군의 역사와 문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포함한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미래 지향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정읍시, 설 장사씨름대회 앞두고 숙박업소 지도 점검

정읍시는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숙박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5일까지 진행된다. 점검은 숙박업소 합리적 요금 게시 여부, 침구류 청결 여부, 친절서비스 시행 여부 등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또 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와 협력해

위생환경 개선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숙박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정읍이 되도록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매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339 (수기동 구,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현재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중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8500만원 문의. 010-3605-5000